

카톨릭 사회교리와 형제애의 삶

글쓴이 Carolyn D. Townes, OFS, 미국국가 형제회 정평창보 애니메이터

회원은 형제애의 정신으로 모든 사람들, 특히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을 기뻐하며, 또 함께 하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회원은 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된 피조물답게 살아 갈 수 있는 생활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한다(재속 프란치스코 회칙 제13 조)

카톨릭 사회교리에 대해서 생각할 때 오늘날 우리들의 생활과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300년 전의 퀴퀴한 냄새가 나는 오래된 문서들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진실에서 멀어질 수 없습니다. 카톨릭 사회교리는 300년 전과 다름없이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교리이다. 아마도 더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간단하게 말하면 카톨릭 사회교리는 하느님과 의 관계, 하느님의 창조와의 관계, 즉 하느님의 백성과 그분의 나라로 이끄는 초대이다. 하느님은 항상 인간과의 관계를 원하셨다. 그렇지만, 하느님은 우리가 그분께 보답을하기를 원하신다. 카톨릭 사회교리는 이러한 관계의 표현이다. 그것은 우리가 하느님과 하느님의 창조와 올바르게 정당한 관계를 가지게 한다.



여배우 바바라 스트레이샌드 가 출연한 "Funny Girl" 영화에서 불렀던 "사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이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사람"이라는 노래가사 가 생각난다. 하지만 자신이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도 안다.

당신 생애에서 있었던 모든 유대관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유대관계들을 키우고 성장하기 위하여 그 관계속에 있었던 사람들과 양질의 좋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 이러한 양질의 좋은 시간 동안, 당신은 대화를 하고, 경청함으로써 상대방을 알게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느님을 알기 위해서는 필히 그분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져야한다. 이러한 관계를 바탕으로 삼아, 우리는 가족, 공동체, 그리고 재속 형제회의 형제 자매들과 더 가까이 함께 할 수 있다. 카톨릭 사회교리는 우리들이 생기가 넘치고, 건강하고, 끈끈한 인간관계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의 문화는 내향적이고, 무관심하며, 간혹 국제적 책임에 직면하면 고립주의를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 카톨릭 사회교리는 어느 곳에 있던지 우리의 형제 자매는 우리가 지킨다는 것을 선포한다. 우리는 국가, 인종, 혈통, 경제적, 이념적 차이를 벗어난 한 가족이다. (미국 카톨릭 주교 단)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 와 형제애가 더욱더 필요하다. 생물학적 가족은 멀리 흩어져 있거나, 줄어들고 있다. 외로움은 더욱 더 고조되어 가고,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기기 스크린 뒤에 숨고 있다. 연구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대면 대화 보다 문자 대화를 선호한다고 한다. 문자 와 이메일 로 의사소통 한다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나는 나의 경험에 의해 잘 알고 있다. 말이 잘못 해석되어 오해를 할 수 있다. 감정을 전달할 수 없고, 측정할 눈맞춤이나 몸짓이 없다.

고립주의적 사회에서 형제애의 생활을 만드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 우리 서로 어떻게 만나는 것은 형제애적, 사회적 생활을 만드는 중요한 역할이다. 카톨릭 교회의 사회 교리는 우리들이 서로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데. 특히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과의 관계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고 있다. 혹시 당신의 형제회에 하위집단에 속한 회원이 있는지요? 그들은 사회적 경제적 위치 때문에 보잘것없는 사람들 인가요? 그분들과 대화를 함으로써, 그들의 생활과 형제회의 생활이 더욱더 생기가 넘치는 삶으로 향하게 도와줄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발견하게 된다. 이런 것들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양성공부의 일부가 될 수 있다. 양성 책임 없이 한 두 달 간 서로 좋은 대화만을 하는 것도 좋겠다. 사람들이 서로에 대해 얼마나 생각하는지를 알기전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고 한다. 서로에 대한 호기심을 가짐으로써 공동체가 형성되고 이러한 공동체는 활발하고 건강한 형제애의 생활을 만드는 것이다.